

녹원스님 고회기념 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 발간

국내외석학 논문 47편...10일 직지사서 봉정식

중국학인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주지)의 고회기념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불교시대사 刊)>가 출간됐다.

국내 외 불교학자들의 논문 47편을 담고 있는 이 논총은 평소 불교학자로서 보여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온 스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는 큰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총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한국불교의 좌표'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교사상 △성보본회의 향기 △통일을 향한 불교사상적 기층 △불교문화의 세계 △미래사회의 불교 △수행의 길 △불교와 과학 △인도불교와 선불교 등 총 8편으로 구성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사상'에서는 <원효의 자비론>을 본 한국불교의 일원론(목적론) <고려말 임제선의 전개(권기중)> 등 11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불교사상전반을 조망하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성보본회의 향기'와 '불교문화의 세계'를 통해 되돌아보고 있다.

'불교와 과학'에서는 <불교의 우주관(조경철)> <불교와 카오스 이론(김용운)> <불교와 현대물리학(박광

서)> 등의 논문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과학과 인류보편의 진리인 불교의 접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운동에서 불교의 역할(장용길)> <북한불교의 재인식(홍사성)> 등을 통해 통일시대를 향한 불교의 사상적 기여(寄與)를 역설하고, <아비달마 철학에서의 3선 논쟁(R·E 버스웰)> <수당이전의 禪學 경전 번역(양승문)> 등으로 인도불교와 선불교를 고찰했다. '미래사회와 불교'에서는 <재가불교운동의 역할과 기대(윤이홍)> <인류의 위기와 불교의 대안(이중표)>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가르침(D·J 칼루파하나)> 등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비한 불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동북문화사 사부문 수상 작품을 부편(附篇)으로 담아 불교문학 진흥에 헌신해 온 스님의 관심과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불교종립대학 동국대 발전기금 3백22억원을 조성,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일산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불교 중흥에 각고의 노력을 펼치며 녹원스님, 녹원스님의 고회기념학술논총(한국불교의 좌표) 발간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된다.

전통미술 뿌리 '불교사상'

진홍섭씨 眉壽 기념집 '신라·고려미술문화'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국미술사학계의 거목 진홍섭박사의 미수(眉壽, 80)를 기념하는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일지사 刊)>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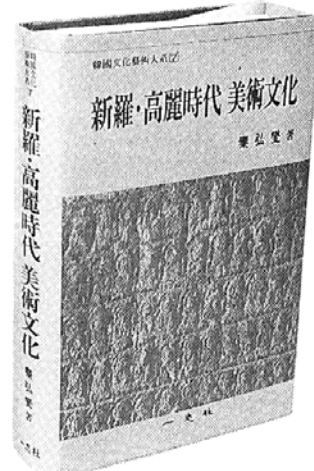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제자들이 뜻을 모아 발간된 책이다.

이 책은 진홍섭박사가 수십년 발굴과 답사현장에서 기록해 두었던 한국미술사의 소중한 흔적들과 당시 현장을 찍은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된 6백7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우리

국토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재의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학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총론에서 필자 자신이 반세기동안 걸어온 미술사의 길과 한국미술 전반을 개관하고 있다. 제2부 신라시대의 미술문화에서는 신라북부지방(지금의 경북)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를 탐과 불상 등의 성보를 통해 논하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특수양식의 석탑'에서는 돌을 베풀듯으로 깎아 쌓은 모전석탑과 석탑의 기반부가 대



50년 연구자료·논문 집대성 '특수양식석탑' 등 원류 탐구

특히 석탑 부도 석등 불상등의 기석과 공예부분의 문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온 장식문양의 일종인 안상(眼象)의 명칭과 기원, 양식도 시대별로 정리했다. 진홍섭박사는 '한국의 안상문양'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뒷부분이 뾰족하게 처리된 점경형(尖頂形) 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시대를 따라 내부공간에 불상을 첨가하고 화형(花形)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나 점경이라는 기본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홍섭박사는 또 "신라시대의 불교

미술은 아미타신상을 바탕으로 불상과 탑 조성에 주력한 반면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초기의 불교미술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 선사들의 부도와 탑비등 선종미술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선종본산과 지방호족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강원도 강릉, 충북 충주 등에서는 그 지방만의 독특한 불상양식이 성립되기도 했다"며 우리의 미술문화속에 깊숙히 깔린 불교적 사상의 영향을 간파해 내고 있다.

이은지 기자

"직지심경 소장본 찾습니다"

직지찾기운동본부 발족
佛보관본 국내유치 계획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찾자는 대대적인 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청주 시민회가 주축이 된 '직지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는 지난달 25일 청주주요인쇄박물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직지 찾기에 착수했다.

직지심경이 금속활자본인 만큼 국내 어디가에 소장본이 있을 것이라는 확산에 관심을 갖는 직지찾기운동본부는 앞으로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지재결연을 맺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우리의 직지를 한국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직지 영인본을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제작배분해 직지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직지관련 강좌 개설로 고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직지가 그려진 전화카드도 제작한다.

직지찾기운동본부 박근태 간사는 "우리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직지찾기운동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지찾기운동본부는 직지심경을 발견한 사람에게 1천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0431)273-7887

종교간 적대감·배타성 극복방안 제시

사랑을 안다면 김경태 지음

물질문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정신세계는 온갖 범죄와 불행에 빠져 있고, 인류의 정신을 인도해야 할 종교계조차 서로 적대감으로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이름 다르지만



이 '진리는 하나'와 '종교적 교리의 상동성'에서는 종교간의 비협력, 적대감, 배타성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와 개인이 극복해야 할 30여 가지의 실천방안들은

종교인인든 비종교인인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이 책은 국제적 종교협력운동, 국내의 종교협력활동, 각 종교 협력운동 등 '종교협력운동의 역사'를 부록으로 실었다.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6월5일>

새로운 책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 (목정배 지음)=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자 성철선사상연구원 원장인 목정배 목정배 교수의 불교 칼럼집. 불교의 생명사상,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 불교의 미래에 대한 연서, 삼성반월과 그 파문, 귀의삼보하는 능동자등 5장에 걸쳐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사로서의 사명감을 펼쳐보이고 있다. (불광출판부 9천원)

▲벼어리 절간이야기(중광스님 지음)=독특한 기행으로 유명한 중광스님이 떠낸 수필집. 벼어리 절간은 현

재 중광스님이 거쳐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군에 자리잡은 산골짜기 토담집을 가리키는 말. 선문답 같은 문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기린원 6천원)

▲매주와 첼리스트(도원녀 지음)=서울대 출신의 첼리스트 도원녀씨의 솔직담백한 생활이야기. 이 책은 20대

중반의 젊은 시절 독일문화원에서 함께 공부하며 알고 지냈던 조계종 초대 교육국장 단연스님과 독일 뮌헨대학에서 공부한 도원녀씨가 15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나 강원도 정선의 두타산기슭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틀게 된 인연과 사랑이야기를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다.(도서출판 다음 7천원)

▲요가수트라(정창영 송보호 편역)=어떻게 요가를 수행할 것인가를 풀이하고 있는 요가 필독서. 모든 요가 체계의 뿌리가 되고 있는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를 읽기 쉽게 번역했다.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인 통일체로 보고, 육체와 정신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육체와 정신

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참자유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요가의 가르침이자 요가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공사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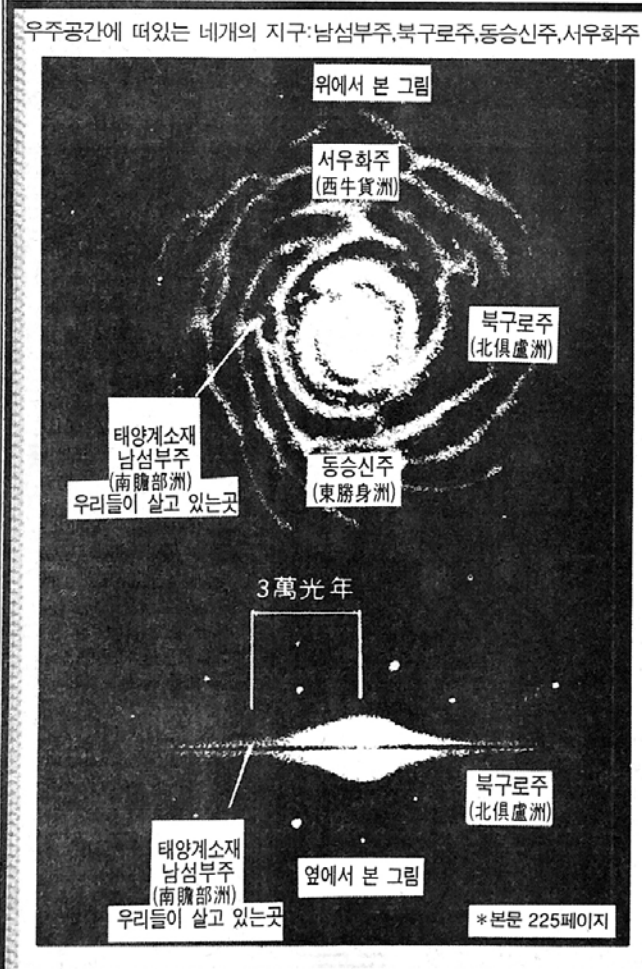
▲우리옛말백가지(조변희 옮김)=임춘, 김시습, 이순신, 박지원, 영조대왕 등 널리 알려진 고려 조선시대 명사들의 명문(名文)을 엄선한 책. <죽부인전> 등의 가전체 소설부터 애첩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문, 문학동호회 서문, 일본 국왕에게 답하는 국서, 상소문,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를 망라한 1백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슬결과 향기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한양사 9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섯이온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효 립
2	불교인문	포 교 원	조계종총무원
3	합동선사 도나 님지	효 립	가 서 원
4	유식인문	대서(대서)	시 공 사
5	49세 공덕과 의미	권 집 부	이 바 지
6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이문
7	역사로 읽는 선효	김 상 현	고 려 원
8	살아있는 선	라즈니쉬	성 하
9	삼승소식	명 정	극락선원
10	화엄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 (02)737-0695



大密旨·大總持가 담긴 道門功課經

육신보살 宏教真人 柳守元 지음 (판나라 道士)

도저히 잊볼 수 없는 삼계제천(三界諸天)의 희유한 고급 정보와 차원(次元) 높은 설법자료(設法資料)가 담긴

옛 진인이 만드신 수도(修道)비밀의 묘체(妙諦)

불경(佛經)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잘 발달된 지구(地球)가 우주(宇宙)안에 세개가 더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합하여 이들 4개 지구에 관한 생활형태등 상세한 비교도표)-우주(宇宙)안에는 서른 여섯개의 하늘나라가 있다(그중 서른여섯 하늘엔 어떤 분들이 계시며, 각각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총합한 정보) - 구룡연대(九龍蓮臺)에는 금선(金仙)·천선(天仙)·신선(神仙)을 합하여 모두 21만명의 선불(仙佛)이 계신다 - 중국에서 더욱더 유명하게 잘 알려져있는 우리나라 신라사람인 지장보살(地藏菩薩)과 김가기진인(金可記真人), 그리고 해인사에서 우화등신(羽化登仙)하신 최지원선생(崔致遠先生)에 관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세분의 역사기록과 스님으로서 유학자(儒學者)로서 도학자(道學者)로서 탁아 진인(佛儒)은 64분의 열선전기(列仙傳記)와 101회 불보살전기(佛菩薩傳記)가 빠짐없이 담겨져 있는 백과사전(百科事典)이다. - 대라천(大羅天)을 위시하여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계신 극락천(極樂天)·공자(孔子)님이 계신 유교극락 수경천(水精天)·예수님, 마호메트님 계신 천당 미라천(彌羅天)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이책에 있다.

말겁(末劫)이 도래(到來)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화성(火星)사람들 에기와 앞으로 지구가 처한 말겁(末劫)을 적나라(赤裸裸)하게 설파한 혼원포대경(混元布袋經) 원문 대역판도 실려있으며, 어떻게 수행(修行)을 하여 사리(舍利·丹)가 이루어지는가, 삼존칠백(三尊七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체(人體)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각종 암(癌)등 모든 질병(疾病)을 일으키며 사람을 사망(死亡)케 하는 초정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삼시구충(三尸九蟲)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인체(人體)의 경락·호흡·오장육부·기공의 수행법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이 한 권 속에 어느 누구라도 간단히 산소(山所) 명당(明堂)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비결(秘訣)과 잉어·게고기를 왜 먹어서는 안되는가라는 등의 청구제계(淸口齋戒) 우월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은 유교(儒教)·불교(佛敎)·도교(道敎)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미 유·불·선·(儒·佛·仙)을 믿고 있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교과(敎底)를 초월하여 꼭 읽어봐야 할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의 모서(母書)이며 실법교재(設法敎材)이다. 불경(佛經)등 36종류 총207권을 동원하여 참고로 충실히 번역하고 주해(註解)하여 편집한 누구나 보아야 할 삶의 지침서(指針書)이며 감히 하늘을 엿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교과서(情報敎科書)이다. 이 소중한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 한권이 당신의 운명(運命)을 찬란하게 바꾸어 줄 것이다.

가보(家寶)로 전(傳)할 만한 비결정전(秘訣經典) 이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이 바로 지금까지 수천년간 황금덩어리로 파묻혀 방치돼 있었던 신비의 책 도가(道家)의 천수경(千手經)이다

고급양장제본/케이스入/定價 上中下98,000원

주문 및 문의

도서출판 淸靜

(우)150-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0

전화 (02)635-2889, 671-2389

팩스 (02)671-2306

온라인: 국민은행 049-01-0518-775 청정출판사